

“경승실 운영은 우리에게 맡기세요”



경승실 운영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다. 오른쪽 첫 번째가 김순자 경승실 운영자. 사진=고영배 기자

바라밀현장

경승실 운영의 경찰포교

“보살님들 덕분에 우리 경승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도 하고요, 매달 정수암에서 법회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요. 당연한 일이죠. 저희들이야 스님 하시는 일이니 따라 할 뿐입니다.”

19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 5층 경승실. 사시마지를 정성껏 올린 후, 불자 경찰들과 보살들이 정다운 다담(談談)을 나누고 있다. 화제는 지난 달 열린 수계법회부

법당 관리는 물론 경찰 포교에도 앞장 신행 상담 통해 마음의 귀여치 역할

더 가정 내 자질구레한 대소사들. 불자 경찰들은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그때마다 보살들은 극구 아니라고 손사래 친다.

불자 경찰들은 누구에게 이토록 고맙다고 하는 것일까? 바로 서울 성동구 정수암(주지 상덕) 신도회 소속 경승실(회장 김순자) 회원들이다. 2000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법당을 지켜온 ‘경승실의 신장’들이다.

경승실(회장 김순자)은 매일 2인 1조

매달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들이 편히 마음을 쉴 수 있는 귀여치가 꾸려지는 셈이다.

경승실(회장 김순자)은 2000년. 당시 성동경찰서 전체 직원의 70%인 500명이 불자였지만 경승실은 법회를 열 공간 하나 없었다. 그래서 인지 실질적인 불교활동을 하는 회원은 고작 30-40명에 그쳤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정수암 주지 상덕 스님과 불자 경찰들은 경승실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이런 노력으로 마침내 2000년 1월 경승실을 개원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법당은 마련했지만 운영이 쉽지는 않았다. 육수복지관 운영에 바쁜 상덕 스님이 이곳을 마냥 지킬 수도 없고, 경찰 불자들은 업무 때문에 법당을 관리할 수 없었다. 법당은 몇 달 동안 텅 빈 채 방치되기도 했다. 불교에 호기심을 갖고 법당을 찾는 경찰들은 아무도 없는 법당에 앉았다가 자리를 뜨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런 사실은 정수암 신도회에 우연히 알려지게 됐다. 신도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성동경찰서 경승실을 돕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김로향(정수자?49) 보살을 중심으로 모임이 구성되었고, 그해 봄부터는 경승실(회장 김순자)이 본격적으로 경승실(회장 김순자)을 시작한다. 이제 만 3년째이다.

김로향 보살은 “어렵게 경승실을 마련했는데, 부처님의 정법을 펼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다”며 “조금이라도 부처님 은혜를 갚겠다는 불자들의 서원이 있었기에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1일부터 신인 경승실 회장을 맡은 최호영(46) 경위는 “정수암 신도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어렵게 마련한 법당을 도로 내놓아야 할 뻔 했다”며 “5월내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 경찰 불자들에게 제대로 불법을 전하는 경찰 불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016)425-8845

김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디파마 법사 (F)

명상통해 ‘제행무상’의 삶 통찰

결혼 후 27년이 지난 후에야 그녀는 디파(Dipa)라는 여자 아이를 낳았고, 이 때부터 디파의 어머니라는 의미의 ‘디파 마(Dipa Ma)’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땀과 눈물로 디파는 빛이었기에, ‘빛의 어머니(Mother of Light)’라는 별명으로 갖게 되었다.

얼마 후 디파마는 고향집에 걸려 몇 년간 누워만 지낼 수 밖에 없었다. 남편 라자니는 엔지니어로서 풀타임 근무를 하는 고된 와중에서도 그의 아내를 간호하고 곁을 지키는 여인 디파마를 돌볼 수 밖에 없었다. 1957년 어느 날 밤,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온 뒤 디파마에게 아프다는 말을 한 뒤 불교를 알게 되던 마친가지를 행복해 질 겁니다. 미술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고 따르세요.”

가르침과 수행으로 30여년만에 견성 체험

일상속 마음챙김 보급, 서구인에 영향 미쳐

산과 남편,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잃은 것이다. 그녀의 건강은 지푸란 나빠졌고, 살아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명상 수행일 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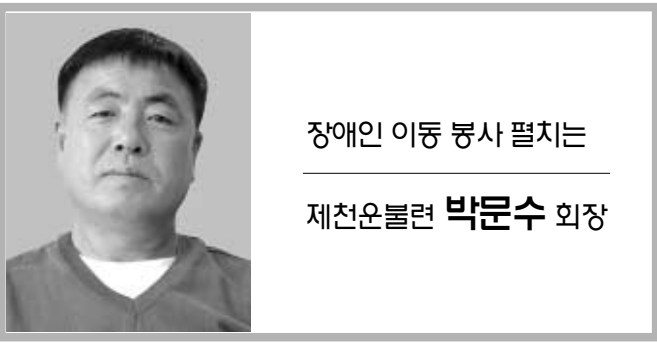
마침내 그녀는 친척이자 친구인 아나 가리카 무닌드라 (Anagarika Mudindrala)가 지도하는 미안마의 타타나 예이크타(Thathana Mudindrala) 명상 센터에서 본격적인 수행을 하게 된다. 놀랍게도 첫째 주의 명상기간 동안 그녀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삶을 통찰하는 체험을 얻는다. 그녀가 밤낮으로 지니고 있던 슬픔도 사라졌다. 그녀의 오랜 두려움도 사라졌으며, 전례없는 평정심과 사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후 디파마의 수행은 극적으로 깊어졌으며, 그녀는 전통적인 관법의 다음 수행 단계로 나아갔다. 6년 뒤, 그녀는 또다시 독특한 수행 체험을 얻었으며, 심오하고도 궁극적인 변화를 감지했다. 53세의 나이에, 제한된 가르침과 수행 기회를 통해 해탈을 감당한 지 30여년 만에 디파마는 처음으로 견성 체험을 하게 된다. 이듬해 집과 명상 센터에서 수행을 계속한 후 그녀는 두 번째 깨달음을 얻고 육체적 정신적 상태 역시 거둔다게 되었다.

디파마는 자신의 변화에 놀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신선해졌고 어두운 그림자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들도 명상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행복해 질 겁니다. 미술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고 따르세요.”



스승 무닌드라(우)와 함께 한 디파마 법사.



장애인 이동 봉사 펼치는
제천운불련 박문수 회장

“미려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발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해 보고 싶어요.”

99년부터 장애인들과 독거노인에게 택시를 이용한 이동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천 운전기사봉사

기사끼리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모두가 불자인 만큼 남을 돕는 일을 해 보자며 자원봉사활동도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인근 제천 장애인복지관으로 태워주는 일을

일 욕심을 내다 보니 운불련 불자들은 노인 경로 잔치, 독거 노인들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쌀과 반찬을 지급하는 일까지 하게 됐다. 이달부터는 월 1 차례지만 목욕을 못하는 독거노인을 위해 이동목

생업 종사하며 틈틈이 이웃돕기 서원 “지역 불교의 중추적 역할위해 노력”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봉사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 우연히 택시에 승차한 장애인들에게 요금을 안 받은 게 인연이 되어 점점 조직적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도움으로 운영된다. 발족 당시 운불련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해 무전기(1천만원 상당)와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성남 보광사 석구 스님, 최근 운불련 사무실을 공짜로 지어주겠다는 통도사 신도회장 한철웅 법사, 이외에도 수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고 있다. 결국 이런 주위의 관심이 운불련 불자들이 더욱 봉사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치는 자극제가 됐다.

6월중에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 가던 그 동안 중지됐던 정기법회도 여법하게 봉행하겠다는 박문수 회장은 “운불련 불자들이 나서서 지역 불교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천=강유신 기자

Application of Experiences from the Senior Citizens' Welfare Program

노인복지현장경험론

이 책은 노인복지시설의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을 개요, 실제, 자료파일, 사례의 네단계를 선택하여 원색화보와 함께 임상사례, 프로그램 내용과 실제, 법인설립관련 내용을 생생하고 풍부하게 엮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운영 10주년 기념으로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의 현장경험을 살려 만든 책이다.

▷ 주요내용 : 종합상담사업 / 재가노인복지사업 / 노인사회교육사업 / 경로당활성화사업 / 생산복지사업 / 노인이동목욕사업 / 의료보건사업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과 관리 / 노인복지후생사업 / 부록 CD -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운영

이 책의 특징

첫째, 노인복지 실무자로서 그동안 축적된 임상경험과 프로그램의 계획, 운영, 평가를 총망라
둘째, 현장에서의 취약점 정리
셋째, 대학생, 대학원생, 케어복지사 등 사회복지분야관련 종사자, 관계공무원들의 지침서

서빙진 저 / 도서출판 솔바람 / 4×6배판. 425쪽 / 값 50,000원

문의 :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총무팀 / 홍보팀 [전화 : 02)385-1351]

제18회 불이상 공고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참신한 젊은 일꾼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연구·실천 2개 분야에 걸쳐 탁월한 가능성을 보인 젊은 인재를 발굴, 그들의 보다 앞찬 발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상을 제정 매년 1회 시행합니다.

- 1. 시상분야**
 - 가. 연구분야
 - ①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이상의 학력자로서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에 있는 자로서,
 - ② 최근 2년 동안 업적 중 불교학(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철학·문학·예술·비교사상·기타) 관계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40세 전후인 자.
 - 나. 실천분야
 - ① 불교에 입문하여 7년이 경과한 불자 또는 불교단체
 - ②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되는 자로서 연령 제한 없음.
- 2. 시상규모** : 각 분야별 1명 500만원
- 3. 후보자 제출서류**
 - 가. 후보자 추천 카드(본회 소장·장·법승)
 - 나. 자필이력서(사진 첨부)
 - 다. 학력증명서
 - 라. 경력증명서
 - 마. 업적 증명용 연구용 또는 활동 내역서, 성적 증명서
 - 바. 기타증, 受戒 증명서
 - 사. 추천서 3통(총장·대학원장, 기타 기관원단체의 장)
- 4. 접수마감** : 2003년 06월 16일까지
- 5. 심 사** : 불이상 심사 위원회
- 6. 수상자 발표** : 불교계 언론매체
- 7. 접수처 및 문의** :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강남구 개포 3동 186-1 개포빌딩 6층
Tel (02)3411-6167-8 / Fax (02)3411-6169

不二會